

2024 봄

#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 커버스토리 ]

영상 속 현장

[ 테마별 이야기 ]

질병별 대응 현황

[ 현장의 목소리 ]

활동가 이야기

[ 사무소 소식 ]

국내 후원개발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월 22일, 크리스토퍼 록이어 Christopher Lockyear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 전쟁 관련 연설을 통해 의료시설, 의료진, 환자의 완전 보호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망자 수가 급증했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천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의료지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외열대질환 NTD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가 펼친 옹호활동의 결과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외열대질환 목록에 노마병이 공식 등재되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노마병 퇴치를 위한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보호자들이 자녀 및 어린 가족 구성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희생을 무릅쓰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도 가족 중 연장자나 취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70개 이상 국가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분쟁, 질병, 빈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빌려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국경없는의사회는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차드, 수단 등 여러 지역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직접 제공하고, 옹호활동과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마병 포함 소외열대질환 관련 장기적 의료 대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이번 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엠마 캠벨



목차

- 04 커버스토리  
영상 속 현장
- 06 소외열대질환과 유행병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
- 08 소외열대질환 :  
노마병, 뎅기열, 리슈만편모충증
- 11 유행병 :  
콜레라, 디프테리아,  
라싸열, E형 간염
- 14 국경없는의사회, 계속되는  
분쟁 상황 속 인도적 지원 활동
- 16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후 1년
- 18 현장의 목소리
- 20 후원 기업 이야기
- 21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 22 후원 소식

COVER STORY

국경없는의사회 애니메이션 "망망대해에서 울리는 외침 LOST AT SEA"의 프로모션 포스터 ©Richard Swarbrick/Presence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4 여윤빌딩 3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www.msf.or.kr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발행일** 2024년 4월
- 발행인** 엠마 캠벨
-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 디자인** (주)헤즈 대표 배명성  
아트디렉터 원상철  
디자이너 주혜슬

[ COVER STORY ]

국경없는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혹은 전 세계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해 세계 곳곳의 인도적 위기를 세상에 좀 더 알리고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작된 3가지 최신 영상물을 소개한다.

# 망망대해에서 울리는 외침

## LOST AT SEA

영상 길이 | 5'06"

한글 자막  
영상물 보기 ▼



국경없는의사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재 눈 필름 Noon Films, 런던 소재 프레전스 Presence사와 합작으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망망대해에서 울리는 외침 Lost at Sea”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겪어온 로힝야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의도로 기획했습니다. 리처드 스와브릭 Richard Swarbrick이 감독한 이 애니메이션은 2017년 미얀마에서 극단적 폭력을 피해 안전을 찾아서 이주해야 했던 로힝야인 무힝 Muhib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힝은 같은 처지의 여성, 남성 및 아동들과 함께 고기잡이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목표로 향해 가다가 안다만 해에서 2주 이상을 표류했습니다. 무힝의 이야기가 플래시백 회고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에서 무힝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노래를 환청으로 들으며 자신이 왜 피란을 떠나야 했는지를 떠올립니다. 애니메이션 음악은 로힝야 시인이자 활동가인 마유 알리 Mayyu Ali의 도움과 그의 아내이자 가수 겸 활동가인 티다 샨니아 Thida Shania의 목소리로 제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로힝야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줄어드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2024년 1월 로마 히어로즈 국제 영화제 Hero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최우수 국제 단편영화상을, 아스투리아스 사회적 영화와 인권을 위한 축제 Festival for Social Cinema and Human Rights에서 젊은 관객을 위한 교육 역량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무힝과 비슷한 항해에 나서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로힝야 난민의 수는 급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운영 디렉터 피터 브로크만에 따르면 약 4,500명가량이 2023년 비슷한 배에 올랐고 약 570여 명이 동남아 해상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 아웃오브피어

## OUT OF FEAR



로힝야 사람들의 고난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로 불리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로힝야 청소년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미얀마에서 부모가 피란을 떠나기 전에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거나 지금 1백만 명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콕스바자르 캠프 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콕스바자르 캠프 내 인구 절반 이상은 아동 및 청소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인권 박탈 상태로 살아온 로힝야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심각하게 제한적인 권리만을 누립니다. 2022년 중반부터는 캠프 내에서 심각한 폭력 증가가 보고되었고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도 이러한 폭력과 연계된 부상자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에 더해 이러한 폭력은 로힝야 난민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2023년 초부터 40% 삭감된 캠프 내 식량 배급량은 2023년 9월 기준 필요한 인도적 자원의 30%만이 달성된 현황을 반영합니다.



영상 길이 | 28'14"


한글 자막  
영상물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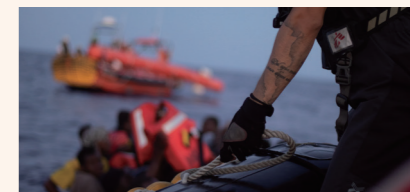


“아이가 여기 자고 있었어요. 총알이 대나무 벽 세 겹을 뚫고 들어와 아이를 맞혔습니다.”  
\_모하메드 Mohamed / 방글라데시 거주 로힝야 난민

# 지중해: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

## SEARCH AND RESCUE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SEA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부터 지중해에서 해상 수색구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지중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2007년 이후 가장 치명적인 해로 기록될 정도로, 약 2,200명의 아동 및 여성, 남성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중해 중부 경로를 통해 주로 이태리 해안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2022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튀니지가 리비아를 제치고 주요 출항지가 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색구조선 지오배런츠 Geo Barents호 운영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럽 연안국들이 이러한 해상 구조 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현상을 고발해 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경에서의 폭력 행위와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이주민을 고의 송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까지 8개의 수색구조 선박을 단독 혹은 기타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통해 운영하면서 9만 명 이상을 구조했습니다. 2021년 5월-2023년 11월 사이에는 2023년 한 해 동안 구조한 4,011명을 포함해 총 9,762명을 구조하고 11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선상에서 신생아 분만도 지원했습니다. 



영상 길이 | 3'30"

한글 자막  
영상물 보기 ▼



지오배런츠호를 타고 지중해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2023년 7월. ©Michela Rizzotti/MSF



**소외열대질환과  
유행병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



**노마병**  
NOMA



**덴기열**  
DENGUE FEVER



**리슈만편모충증**  
LEISHMANIASIS



**콜레라**  
CHOLERA



**디프테리아**  
DIPHTHERIA



**라싸열**  
LASSA FEVER



**E형 간염**  
HEPATITIS E

# | 소외열대질환

한풀 꺾인 코로나19의 그림자 뒤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각종 소외열대질환과 유행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노마병, 뎅기열 리슈만편모충증과 같은 소외열대질환과 콜레라, 디프테리아, 라샤열, E형 간염과 같은 치명적 유행병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질병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 NOMA

### 노마병

1

'가난의 얼굴'이라고도 불리는 노마병(Noma)은 빈곤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5세 미만 아동이 주로 걸리는 비감염성 소외 질환으로 구강궤양과 비슷한 잇몸 염증으로 시작하지만 2주 만에 뼈와 조직을 파괴해 턱, 입술, 볼, 코, 눈을 망가뜨리고, 환자는 어마어마한 통증, 호흡 합병증, 섭식 장애까지 겪게 된다.

노마병이 소외열대질환(NTD)으로 인정되도록 3년간 집중적 옹호활동을 전개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노력이 2023년 말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노마병을 WHO 공식 소외열대질환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마병을 소외열대질환으로 인정할 것을 주도하여 요청한 후원 국가는 나이지리아다. 2023년 1월, 나이지리아 보건부는 공식 요청서 및 한국 포함 31개국의 지지 성명서, 노마병이 소외열대질환 목록 등재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포함한 패키지를 WHO에 제출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노마병의 소외열대질환 목록 등재가 더 많은 관심 및 조기 진단, 보다 영향력 있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년간의 연구와 노마병 생존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가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4년부터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보건부 산하 소코토 노마 병원(Sokoto Noma Hospital)을 지원해 왔으며, 재건 수술 및 영양실조 지원, 정신건강 지원, 보건증진 활동을 전개했다. 소코토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수술팀은 2014년 이래 총 837명의 환자에게 1,203건의 수술을 제공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 세계 학술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노마병의 원인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 단계는 노마병 감시 체계를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활동에 통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노마병 관련 옹호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3년간 실시한 옹호활동은 '노마병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노마병 생존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1.



2.

1.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재 소코토 노마 병원에서 치료받은 6세 노마병 생존자 아이샤(Aisha). 2023년 5월. ©Fabrice Caterini/Inediz

2. 노마병 환자들의 물리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 2023년 5월. ©Fabrice Caterini/Inediz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볼바키아 프로 젝트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팀. 2023년 8월. ©MARTIN CALIX/MSF



## DENGUE FEVER

### 뎅기열

2

뎅기열(Dengue fever)은 모기를 매개로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열병으로 단순 뎅기열과 급성 뎅기열 두 형태로 나뉜다. 단순한 형태의 뎅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로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출혈성 뎅기열은 치사율이 높다. 간이 붓거나(간 비대증), 정신장애(과민증, 혼미, 무기력), 출혈(피부, 점막, 내장 및 뇌 부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의 가장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에서 뎅기열 대처 방식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온 뎅기열 예방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기술과 지역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두라스 수도 내 보고된 뎅기열은 9,200건이 넘는다. 해당 도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이 지역의 뎅기열 발병률이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뎅기열 예방법은 뎅기열 혹은 지카, 치쿤구니야와 같은 기타 질병의 전파를 막는 볼바키아(Wolbachia) 박테리아를 지닌 모기를 활용한다. 몇몇 모기, 초파리, 나방, 잠자리, 나비와 같은 곤충의 50%가 해당 박테리아를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르보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매개체 중 하

나인 황열모기(Aedes aegypti)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계 모기 프로그램(World Mosquito Program, WMP)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 연구실에 있는 모기알에 볼바키아 박테리아를 주입한 뒤, 향후 모기알이 부화해 성충이 되면 조치 대상 지역에 방사해 이러한 질병의 확산을 줄이고 현지 모기와의 짝짓기를 통해 다음 세대로 증식될 수 있도록 한다. WMP 볼바키아는 호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국가에서 활용되어 1천 1백만 명이 이러한 모기 매개 질병 예방법으로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뎅기열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 상태였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뎅기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_산드라 Sandra / 테구시갈파 주민

**국경없는의사회는 '볼바키아 방법' 어디서 쓰나요?**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지역에서 실험을 예정입니다. 온두라스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 사람들이 뎅기열 영향을 받으며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향후 3년간 테구시갈파 지역 공동체들과 보건부, 세계 모기 프로그램 및 온두라스 국립지체장애 협력에 시행할 벡터 실험법 중 하나로, 이전에 온두라스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전한가요?**

네, 볼바키아는 자연발생적이고 무해한 박테리아로 사람, 동물이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곤충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형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볼바키아는 질병이 아닙니다.

# LEISHMANIASIS

# 3

## 리슈만편모충증

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은 모래파리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열대 기생충 질환이다. 구체적으로 내장 리슈만편모충증, 점막피부 리슈만편모충증, 파종성 피부 리슈만편모충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은 파키스탄에서 풍토병으로 나타난다. 보통 작은 뾰루지나 흑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심한 흉터를 남긴다.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을 야기하는 모래파리.  
©Sara Olausson

파키스탄 전역, 특히 발루치스탄(Balochistan)과 카이베르 파크툽크와(Khyber Pakhtunkhwa)에서 피부 리슈만편모충증(Cutaneous Leishmaniasis, CL) 환자가 증가하고 카이베르 내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 유입되는 환자 수가 두 배가량 늘어났다.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은 궤양과 흉터를 남겨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며, 열악한 거주 및 위생 환경, 폐기물 관리, 해당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 기후 변화 등 각종 요인에서 기인한다. 피부 리슈만편모충증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은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폐기물 처리, 모래파리 번식지 감소, 살충 처리된 모기장 사용과 같은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 보건 센터에서는 약물 재고 및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대체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86명의 환자가 시험대상자로 등재되었다.

무상 CL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역할을 하는 국경없는의사회는 발루치스탄 및 카이베르 파크툽크와 보건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도 제공하며 인식 제고 및 예방 조치를 위해 보건증진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3년에 약 12,000명의 CL 환자를 치료하고 2008년 이래 51,000명 이상을 치료했지만, 여전히 약물 재고 및 비용에 관련된 문제를 지속해서 마주하고 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약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페샤와르(Peshawar)에서 추가적인 임상시험 장소가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08년부터 파키스탄에서 5개의 진단 및 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CL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 당국과의 협력에 치료,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보건증진 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CL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년 10월. ©MSF

# | 유행병

# CHOLERA

# 4

## 콜레라

수인성 질환인 콜레라(Cholera)는 비브리오 콜레라균이 유발하는 급성 위장 감염병이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고, 오염된 표면에 직접 접촉했을 때도 전염된다. 콜레라가 풍토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갑자기 대규모 콜레라 유행이 일어나 순식간에 병이 퍼져 나갈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거나 경미한 감염만 겪지만, 병이 심하면 수성 설사와 구토가 일어나 중증 탈수와 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

2023년 10월부터 짐바브웨 남동부 마니칼랜드(Manicaland) 주의 부헤라(Buhera) 지역에서 대규모 콜레라 유행이 시작되었다. 2023년 2월에 첫 콜레라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짐바브웨 10개 주와 62개 구를 통틀어 24,885명이 감염되었고 501명이 사망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023년 10월 초부터 부헤라에서 콜레라 유행에 대응해 왔으며, 해당 지역 소재 37개의 모든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했다. 또한 지역 의료시설에 콜레라 치료 센터 21개를 설치하고 부헤라 전역에 있는 마을에 경구 수분 공급처 6곳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그뿐 아니라,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주민들이 시설에 찾아와 치료받도록 독려하고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부헤라 지역에는 깨끗한 식수와 위생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고 수풀에서 배변을 해결하는데, 이러한 생활이 콜레라 확산을 부추겼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지역 인구의 3/4(약 20만 명)이 주류 의학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 신도들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거나 공공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는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고 있고 보건당국의 지침 없이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들이 비밀리에 매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콜레라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지역사회 의료보건 종사자들과 협력했고, 해당 지역사회 의료보건 종사자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건 지식을 전파하면서 올바른 위생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시 의학적 치료를 받으러 오도록 장려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짐바브웨 보건교육부 및 파트너 단체들과 협력하여 감염 사례 모니터링 및 확진자 조사, 위험 관리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참여 및 신고



관련 교육을 362명의 지역사회 의료보건 종사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렇듯 콜레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국경없는의사회, 짐바브웨 보건 당국의 노력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다른 지역에 활동을 집중하기 위해 부헤라 내 활동을 축소하고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Harare)에서 식수위생(WASH) 활동과 콜레라 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1. 베레냐즈비(Berenyazvi) 마을 소재 진료소의 콜레라 치료 센터를 청소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들. 2024년 1월. ©MSF
2.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이 스카치 카트에 실려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 2024년 2월. ©MSF

# DIPHTHERIA

## 디프테리아

# 5

디프테리아(Diphtheria)는 매우 전염성이 높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균성 질병으로 호흡 기관이나 피부에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디프테리아 환자 절반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환자의 5%는 여전히 사망할 수 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디프테리아 환자들에게 배급되는 키트에 각종 위생 용품과 식기가 포함되어 있다. 2023년 12월. ©Andrej Ivanov/MSF

기니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디프테리아의 대규모 재유행이 보고됐다. 2022년 8월 니제르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기니를 비롯한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기니는 30년 이상 디프테리아 발병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의료진들이 특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3년 7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기니 시기리(Siguiri)에서 대대적인 디프테리아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4일 기준,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보건부와 협력하여 시기리에서 2,122명의 디프테리아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 중 18%가 5세 미만 아동 환자였다. 디프테리아는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죽은 백혈구나 박테리아와 같은 기타 물질로 만들어진 위막이 급격히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항독제를 신속히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독제 부족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종종 환자에게 선별적으로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증 환자는 항생제와 전염 위험 감소를 위한 안내문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고, 3-7일 후 재검진을 받게 한다. 이러한 대응으로 디프테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38%에서 5% 미만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디프테리아를 잘 아는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고 항독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환자와 간병인들은 디프테리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디오, 학교, 입소문을 통해서 치료 센터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백신 부족으로 인해 환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리에서 본격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병 통제를 위해 백신 생산을 가속할 것을 관련 업계에 촉구하고 있다.

# LASSA FEVER

## 라싸열

# 6

라싸열(Lassa fever)은 주로 쥐의 소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 급성 열병으로 흔히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초기에는 발열, 흉부 통증, 두통, 근육통, 복통, 인후통, 기침,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되며, 보다 악화되어 높은 고열과 급성 출혈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임상 분석에 쓰일 라싸열 표본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3월. ©Abba Adamu Musa/MSF

2023년 기준, 나이지리아에서 8,978건의 라싸열 의심 사례와 1,227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8년과 2022년부터 각각 아바칼리키(Abakaliki)와 바우치(Bauchi)주에서 라싸열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쥐를 통해 전염되는 해당 질병은 쥐가 인간의 거주지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건기에 최고조에 이른다. 국경없는의사회의 '매개체 통제 전략'에는 쥐덫, 쥐약, 폐기물 관리에 대한 보건 정보 등이 포함된다. 라싸열은 말라리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방식을 개발하여 의료진이 증상, 건강 기록, 설치류 또는 감염자 노출을 기반으로 의심 사례를 식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라싸열 의심 환자가 국경없는의사회 격리 센터에 입원한 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바이러스 검사실로 이동하여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신건강팀의 상담 및 심

리사회적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라싸열 생존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낙인과 오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싸열에 대처하는 과정에는 의료진의 인식, 제한된 자원, 의료시설 접근성 등의 어려움이 현존한다.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진행 팀은 라싸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교육 및 인지 제고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게 라싸열 생존자는 전염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듯 국경없는의사회는 라싸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이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나이지리아에서 라싸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지역사회 참여, 보건 교육 등을 제공하며 종합적 대응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HEPATITIS E

## E형 간염

# 7

E형 간염(Hepatitis E)은 치명적인 수인성 질병으로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증상은 눈과 피부에 나타나는 황달, 피로감, 검은색 소변 등이다. E형 간염은 악화 시 급성 간부전이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위험한 질병이다.



1. 남수단 중글레이주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한 여성에게 E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3년 12월. ©Gale Julius Dada/MSF

2. 국경없는의사회 예방접종 팀이 보트를 타고 외딴 마을로 향하고 있다. 2023년 12월. ©Gale Julius Dada/MSF

남수단 내 치명적인 E형 간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보건부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캠페인을 전개해 E형 간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큰 여성 및 생식 가능 연령의 여성들이 해당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4월 이후, 남수단 중글레이(Jonglei)주 소재 올드 판각(Old Fangak)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에서 E형 간염 환자 501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그중 21명(대부분 여성)이 사망했다. 최근 E형 간염 유행의 급성 단계에 남수단의 외딴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이번 예방접종 캠페인은 추가적인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2012년에 개발된 E형 간염 백신은 WHO의 허가를 받아 2015년부터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태껏 해당 백신은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못했다. 이는 2022년 국경없는의사회가 마찬가지로 남수단에 있는 벤티우(Bentiu) 소재 국내 실험인 캠프에서 세계 최초로 해당 백신을 사용해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전개했을 때이다. E형 간염 유행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던 당시, 25,000명 이상이 향후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았다.

최근 판각 카운티(Fangak County)에서 전개되었던 예방접종 캠페인은 벤티우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만, 벤티우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판각 카운티는 남수단 북부 극히 외딴 지역에 위치한 수드(Sudd) 습지대에 있어 예방접종을 전개하려 병원

에 접근하려면 보트로 나일강을 건너거나 항공기를 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올드 판각에 있는 활주로가 지난 4년간 범람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항공기로 근처 마을에 백신을 가져다 놓고 강을 따라 35km를 더 이동해서 병원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신의 콜드체인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난제는 백신의 제한적인 물량과 높은 가격이다. E형 간염 백신은 중국의 한 제조업체에만 생산 허가가 난 상태이고 대량생산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특히 올드 판각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운송 및 보관이 어렵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더 많은 사람들, 특히 E형 간염에 가장 취약한 가임기 여성들이 보호될 것을 촉구한다.

예방접종 캠페인 이외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감염 사례 관리 및 병원 이송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인식 제고 캠페인과 역학조사 또한 진행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 국내의 보건 및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이 인식 제고, 화장실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같은 적절한 하수 및 위생 시설 도입, 안전한 식수 제공 보장을 위한 시추 작업 등을 통해 올드 판각 내 식수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질병 확산을 막고 향후 발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 국경없는의사회, 계속되는 분쟁 상황 속 인도적 지원 활동

국경없는의사회는 긴급대응 혹은 기존 해당 지역 운영계획 재정비를 통해 전 세계 곳곳의 위급한 분쟁 지역 의료지원과 생명을 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말 혹은 그 이전부터 크게 불거진 갈등이 2024년 봄까지 지속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해진 곳들에서 최근 활동 상황을 전한다.



## 가자지구

2023년 10월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벌어진 하마스의 잔혹한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인도적 위기가 재앙적 수준으로 치달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1백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 Rafah에서 대응을 조정하는 동시에 환자 외 의료진,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2023년 12월 중순부터 라파 소재 인도네시아 야전병원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2024년 3월까지 5,800건 이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200명 이상 환자를 치료했다. 외래 부서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치료한 환자 60%는 외상성 부상 환자, 나머지 40%는 전쟁 관련 화상 환자이며, 이중 40% 이상이 아동이었다. 현지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부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은 거의 70,000여 명에 달하는 바, 국경없는의사회가 가자지구에서 전개해온 의료 대응은 막대한 수요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1.

## 수단

2023년 4월 신속지원군 RSF과 정부군 간에 격화된 분쟁으로 인해 수단 내 피난민들은 인접국 차드 등으로 대규모 피란을 떠났다. 2024년 2월까지 약 9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수단 북다르푸르주에서 기존에도 취약했던 보건 체계와 인도적 대응은 거의 붕괴되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시행한 영양실조 및 사망률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다르푸르 소재 잠잠 캠프 내 상황이 특히 열악해 모든 영양실조 관련 지표가 긴급사태 수치에 도달했다. 카르툼주에도 제대로 기능하는 의료시설이 거의 없어 약 3백만 명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수단 당국의 여행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에게도 신속지원군 통제 구역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3년 10월 이후 최초로 2024년 2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에게 카르툼 이동 허가가 발급됐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외에 백나일, 청나일 주 및 서다르푸르, 남다르푸르를 포함한 총 9개 주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되는 전투를 피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카르툼을 떠났지만, 도망칠 여력이 안 되거나 취약성 또는 치안 불안 때문에 떠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필수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장-기 바토 Jean-Guy Vataux / 국경없는의사회 수단 현장 책임자, 2024년 1월

- 1. 2023년 12월 라파 인도네시아 야전 병원 입원실의 환자들 ©MSF
- 2. 2024년 1월 수단 북다르푸르 잠잠 캠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 밖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아동 및 여성 환자들 ©MSF

## 콩고민주공화국

2022년 3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에서 무장 반군 단체 M23의 재부상으로 무력 충돌이 급증하며 100만 명 이상 주민들이 강제로 떠나고 30년 이상의 분쟁과 실항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재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2024년 들어서도 계속되는 무력 충돌로 추가적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지원하는 의료시설에도 전쟁 부상 환자가 대거 유입됐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키부주 마시시 지역 약 3만 명 이상 실항민을 포함해 2023년 2월 해당 지역 폭력 사태를 겪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국제연합 UN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후 남키부주 국경 너머에서도 충돌로 공포에 질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입돼 신규 실항민이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남키부주 미노바에서 활동하면서 2023년 상반기엔 북키부 분쟁 여파에 대응하고 12월부터는 해당 실항민 정착 지역에서 신규 긴급대응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3. 2024년 1월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 고마 북부 실항민 임시 거주 캠프 모습 ©Philémon Barbier
- 4. 2024년 2월 기준 국경없는의사회 우크라이나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지도 ©MSF

##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격화된 전쟁이 2024년 2월 24일로 2년을 넘겼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부근 주민들은 2014년부터 지속된 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 정신건강 지원에 집중하던 국경없는의사회는 2022년 전쟁 격화 이후 치열한 전선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한편 전투 지역에서 안전과 치료를 위협받는 환자들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송하는 의료 대피 열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2024년 2월 기준 변화한 전황에 따라 이제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들을 서부로 이송하기보다 구급차를 운영해 보다 가까운 의료시설로 긴급 환자를 이송하고 재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등 활동 내용을 재조정해나가고 있다. 막대한 정신건강 지원 수요가 상존해 심리적 응급처치와 정신건강 상담, 종합적 심리치료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형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여기저기서 전쟁의 고통이 여실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통의 무게를 덜고자 외상 후 장애 심리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가 개소한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전쟁의 잔해는 어느 정도인가 감히 생각합니다.”

—신효정(가명) /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2024년 2월



3.

4.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발생 후 1년



2023년 2월 13일 시리아 북서부 알 다나 지역 이동진료소에서 환자를 등록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Abdul Majeed Al Qareh

2023년 2월 지진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에서는 수시간 이내에, 튀르키예에서는 수일 이내에 현지 파트너를 통한 대응에 나섰다. 이후 수개월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재민들 대상 의료지원과 담요 및 위생도구를 포함한 필수품 제공, 식수위생 개선, 의료시설 재건, 정신건강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튀르키예에서 현지 파트너를 통한 대응은 5월 말에, 시리아 지진 대응은 6개월 후에 종료됐으며, 이후 계속된 활동들은 국경없는의사회 정규 프로젝트들에 통합됐다.

## 수치로 보는 국경없는의사회 시리아 지진 대응 활동

깨끗한 물 8백만 리터 제공	정신건강 상담 8,026건
이동진료소 및 의료시설 외래환자 진료 198,477건	매트리스 8,005개
위생 키트, 취사용품 키트, 월경 키트 등 구호 물품 110,835개 배급	텐트 6,411개
빵 38,255개	물탱크 1,000개 설치
담요 28,645개	화장실 620개
	사위 90개 점검 및 보수

## 시리아

시리아의 경우, 1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дли브 Idlib 및 알레포 Aleppo 주를 포함한 북서부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여건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진은 이미 위태로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실랑민 캠프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다. 지진으로 인해 시리아 소재 의료시설 55개가 손상되고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한 명이 시리아 북서부 이дли브에 위치한 자택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또 다른 직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오랫동안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3시간도 채 안 되어 긴급대응 활동을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지진 발생 후 첫 몇 시간 동안은 의료진이 의료시설에 도착하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으며, 약 200명을 치료했다. 또한 이дли브 북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구급차를 보냈다. 첫날에는 이дли브를 비롯한 시리아 행정구역 전역에 있는 23개의 의료시설에 긴급의료 키트를 지원했고, 현지에서 대응하는 팀을 보강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 겨울이 시작될 점을 고려하여 실랑민들에게 담요와 필수품도 지원했다. 지진 발생 후 몇 주에서 첫 몇 달 동안은 임시 거처 및 식량,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식수위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외과의를 포함한 의료 인력 제공, 정신건강 관련 응급 처치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랑민 임시 거처 및 수용 캠프 대상 이동진료소 설치도 진행됐다. 시리아 북서부 주민들을 위해 트럭 40대가 넘는 의료 및 비의료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2023년 4월과 5월에는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했고, 특히 정신건강 치료를 보강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특히 아동을 위한 놀이 및 사회심리적 지원 활동을 진행했고, 캠프 이동진료소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계속해서 제공했다. 또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상 환자들에게 후속 치료와 재건 수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дли브주 소재 병원에 외과 직원을 지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진 발생 6개월 후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시리아 북서부 내 정규 활동에 통합하여 노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긴급대응 단계를 종료했다.



## 튀르키예

행정적 제한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전개하는 모든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은 이메세 이니셔티브 Imece Inisiyatili 및 야르딤 콘보유 Yardim Konvoyu, 마야 바크피 Maya Vakfi 등 현지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튀르키예 내 아디아만 Adiyaman 및 가지안테프 Gaziantep, 하타이 Hatay, 카흐라만마라스 Kahramanmaraş, 킬리스 Kilis, 말라티아 Malatya 지역에서 활동했다. 2023년 2월과 3월에는 현지 파트너 단체들을 통해 의료·물류 물자·식량·물을 지원 및 배급했다. 또한 실랑민들이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담요 및 전기난로, 보온 내의를 포함한 구호 물품과 위생 키트를 배급했다. 대응 초기에는 임시 캠프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마련하여 식수위생 지원을 제공했다. 지진 강도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겪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졌기에 3-5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현지 단체들은 튀르키예 의료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 수색구조 팀, 아동, 성인 등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은 개별 및 그룹 세션을 통해 제공됐다. 심리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령 그림 그리기 및 춤추기, 음악 듣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5월 말, 튀르키예에서 긴박한 지원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었을 무렵 국경없는의사회는 해당 지역 활동을 종료했다.

- 2023년 2월 시리아 탈 아마르 지역 실랑민 등록 센터에서 구호품을 배급 중인 국경없는의사회 팀 ©Omar Haj Kadour
-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2023년 3월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야 캠프에서 아동 대상 정신건강 보건증진 활동 중이다. ©Tom Casey/MSF

### 수치로 보는 국경없는의사회 튀르키예 지진 대응 활동

튀르키예 지진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을 통해 아래 지원을 제공했다.

- 물 430,000리터
- 위생 키트 38,154개
- 식사 390,500끼
- 10,100명 대상 그룹 및 개별 세션을 통한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 담요 9,171개
- 텐트 및 방수포 2,192개
- 화장실 350개
- 샤워 173개
- 컨테이너 65개
- 물탱크 61개
- 장작 53.1톤
- 카흐라만마라스 병원에 엑스레이 기계 1대 제공
- 하타이 교육 및 연구 병원에 양수기 1대 및 탱크 1대 제공

### [ 현장의 목소리 ]

2024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국경없는의사회는 분쟁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조명했다. 이제 한국사무소에서 비교적 최근 세계 각지에 파견됐던 다양한 분야의 여성 활동가들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들어보자.

#### 01 홍기배 활동가 | 소아과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파르Afar 지역 두브티Dubti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근 티그라이Tigray 지역에서 분쟁이 격화되는 바람에 유입되는 영양실조 아동이 급증해, 제가 부임하기 약 8개월쯤 전(2022년 12월)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영양실조 병동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프로젝트를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두브티 병원에 마취과이나 성형외과의는 없고, 수도 아디스아바바로의 전원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이동에 적어도 8시간은 소요되고, 운전해서 가는 길이 치안이 불안해선지 보통은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실정이었습니다. 3차병원이다보니 중환자가 꽤 많았고 저도 중환자실에서 꽤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흑열병내장 리슈마니아증의 경우 많이 진행된 상태로 환자가 오면 사실 치료가 힘들거든요. 내장까지 장기간 병이 진행돼 간과 비장이 커지고 골수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며 지혈마저 안되면 사실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버티도록 약제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보통 1인당 아이 네다섯 명을 낳아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영아사망률이 높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와 국경없는의사회 현지 의료진은 이에 '물론 어떻게 될지는 신의 뜻이겠지만 치료 과정을 건디는 것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설득 안되고 바로 도망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0명 중 6명은 그래도 설득됐습니다. 사실 의료진뿐 아니라 병원 문 앞 경비원까지 한마음이 되어, 환자가 말도 없이 퇴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의료진에게 바로 연락하고 출발하려는 뚝뚝(모터바이크가 달린 현지 교통수단)을 함께 붙잡고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01 2023년 에티오피아 근무지에서 추간 회의 후 홍기배 활동가 ©홍기배/MSF



02 2021년 방글라데시 근무 당시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동료와 함께한 최정윤 활동가 ©최정윤/MSF

#### 02 최정윤 활동가 | 약사 한국 광주에서 원격 근무

모바일 실행가 Mobile Implementation Officer라는 말이 붙는 원거리 근무 자리에서 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와 중동 예멘 제외, 유럽의 그리스와 발칸 북부까지, 현지 프로젝트들에서 약사로서 일하는 동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근무 중인 동료들을 상대로 일종의 온라인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1년 첫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제가 지원한 현장 중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제가 그곳에 나가서 일한 적도 두 번이나 있는 데다가 마침 지금 거기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저의 이전 동료거든요. 시리아의 경우도 이전에 제가 베이루트에 기반을 두고 지원한 적이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때 동료 중 일부가 근무하고 있기도 해서 익숙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제가 여기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람 있는 일이 효율적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약국에서 일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적 이익을 무시하고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일하면 정말이지 순수하게 오직 환자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자유로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차피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전제로 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저는 경제적 요소보다는 내가 흥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03 신호정 활동가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키르기스스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긴급의료구호 프로젝트의 수장으로서 각각의 책임 부서 의료, 인사, 재무, 운송, 물자 등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국가 내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면서 해당 프로젝트 관련 모든 실무 결정권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물론 의료분야 지원에 특화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쟁이나 재해가 발생한 곳에 의료 인력이 도착한다고 해서 갑자기 병원 시설이 생겨나거나 수술대가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국 출신 활동가들이 긴급 현장에 도착할 때는 기본적인 의식주나 활동 현장의 안전보장은 물론 필수적 의료 관련 물품도 준비되어 있어야 활동이 가능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지 의료·행정·보건·교육 등 관계 당국과 협력 체계 역시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게 사람이 조직을 이뤄 하는 일이다 보니 이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업무 기반은 물론, 특수한 상황에 맞는 부가적 요구사항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그런 프로젝트의 전체적 진행과 현장 사무소 운영 부문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은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구소련 붕괴 후 불명확한 영토 관계로 인해 계속 소요 사태와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던 곳입니다. 사실상 '국경 없는' 시대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에 이어 2022년 9월에는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십여 만 명의 실랑민이 발생할 정도로 큰 유클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국경없는의사회가 사태가 발생한 직후 바로 바트켄 주에 인력을 투입해 긴급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03 폭격 피해가 있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 심리사회적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팀/MSF



03 2023년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현장 사무소 앞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신호정 활동가 ©신호정/M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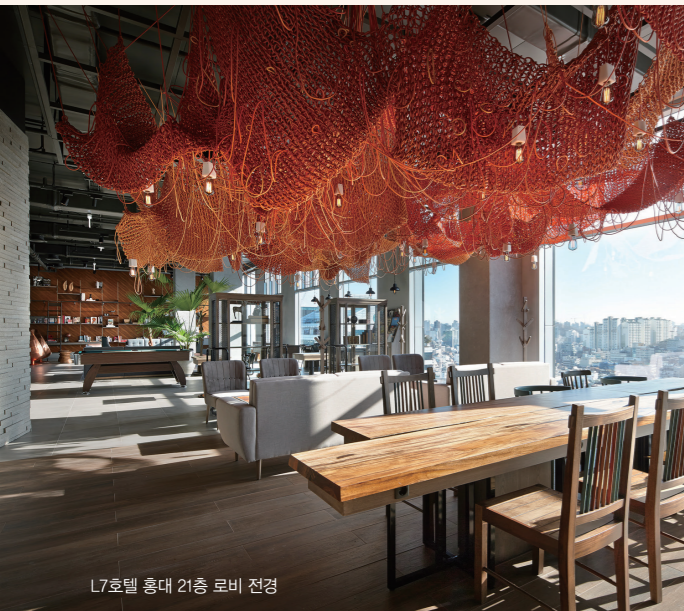
#### 04 이진희 활동가 | 건축 팀장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마이두구리에서 현지 보건부가 관할하고 국경없는의사회가 입원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 부지 내 약국 창고 1개 리모델링과 물류 창고 1개 신축 과정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공사기간은 총 3개월이었고, 저는 8개월 근무했는데요. 이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설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 공사와 완공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건축 관련 행위를 관리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만 하는 것도, 현장 관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한국 내 경력이나 알고 있던 환경과는 많이 다르고, 현장에서 쓰이는 재료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벽돌과 콘크리트가 주요 자재인데 그곳에서 쓰는 콘크리트 블록은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일정치 않은 품질로 제조되어 그런지 잘 부서질 때도 있어 현장에서 섞이는 시멘트 비율이나 철근 크기 등 관리 감독도 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거나 전력 시설이 불안정한 등 제약사항에 대한 대처법도 찾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적성에 맞는 이유가 새로운 환경에서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보람도 크게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들을 위해서 짓는 건물들이니까요. 어차피 건축이라는 업이 너무 자르고 시멘트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4 2024년 나이지리아 현장에서 동료들과 작업하는 이진희 활동가 ©이진희/MSF

### [ 후원 기업 이야기 ]



L7호텔 홍대 21층 로비 전경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유럽 지역 호텔 숙박 업계 파트너들과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첫 숙박업계 기부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실행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2023년 8월부터 일부 호텔 숙박 예약금액이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 약정되는 “리링크 스테이(Re.Think Stay 패키지, 2박 이상 투숙하는 고객의 침구류를 교체하지 않고 세탁 과정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상품)” 패키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환경, 사회에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있던 중, 현재 국내호텔 2박 이상 투숙 고객의 침구 정비 및 교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고객과 함께 조금 더 친환경 실천을 도모하고자 이 패키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으로 예약하시는 고객의 LH500 포인트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의료지원에 기부된다’고 기재해 고객도 이렇게 의미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기부 파트너로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사는 좀 더 투명하고 후원사의 기부금을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저희 취지와 가장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 파트너사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 모습과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기존 활동 분야나 지역 중 유독 담당자 분들의 마음이 가거나 인상 깊은 부분이 있나요?**

TV 광고 등에서 구호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치료나 수술이 열악한 활동 현지에서는 자칫 생명과 연관되어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제게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에 동참하려는 투숙객들에게도 분쟁 및 자연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긴급 구호활동이 호소력이 있었을까요?**

기획하면서 ‘과연 이 패키지가 고객들에게 어필이 될까?’ 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한 판매율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도 국경없는의사회의 긴급 구호활동이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구호활동, 기부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꾸준한 홍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롯데호텔 측이 전달한 후원금이 특별히 사용됐으면 하고 희망하는 분야가 있나요?**

현재 미얀마 양곤에도 저희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국경없는의사회가 미얀마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구호가 긴급한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먼저겠고요.

**2024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와 ESG 분야 협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리링크 스테이 패키지는 2023년 8월에 시작돼 2024년에도 꾸준한 판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예약하실 수 있는 만큼, 이런 좋은 취지의 여행 상품을 조금 더 많은 여행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에 알리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ESG 프로그램이나 기업 후원을 생각하는 담당자분들에게 팁이나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와 내 조직은 후원자이지만, 우리도 후원을 받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꼭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작은 후원도 지금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기 마련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직접 후원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커뮤니케이션팀  
ESG 담당 허선미 책임



**국경없는의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함께하는 동행기업이 되어 주세요. 다양한 기부 방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개 | [msf.or.kr/corporate](http://msf.or.kr/corporate)  
문의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mailto:corporate@seoul.msf.org) 전화 02-3703-3573

### [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



### 국경없는의사회 디지털 캠페인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디지털 캠페인 '너와 나 우리 모두 국경없는의사회'가 진행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부터 채용 소식까지, 국경없는의사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직접 꾸민 자신만의 캐릭터를 활용한 온라인 국경없는의사회 응원카드도 마련됐습니다. 좌측 QR 코드를 이용해 간단히 접속해보실 수 있습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포커스 FOCUS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의 위급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조명하기 위한 활동 브리핑 7번째 세션인 '포커스 FOCUS'를 2024년 2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다뤘습니다. 응급의학/마취과 전문의로서 지난해 11월 가자지구에서 활동한 유코 나가지마 일본 사무소 이사회 대표가 가자지구의 긴급한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의 대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

지난 2월 29일, 현장 구호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가 온라인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본부에서 수송행정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황선미 활동가와 현장 인력 개발 담당자인 캐서린 스미스가 직접 채용 과정 및 현장 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비의료 직군인 프로젝트 재무 담당자와 인력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후원 소식 ]

## 스쿨펀드레이저

### 배명고등학교 <사랑의 밥그릇 x 스쿨펀드레이저>

1997년부터 이어온 배명고등학교 학생회의 모금활동인 '사랑의 밥그릇'이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와 융합되어 총 6번에 걸친 모금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홍보 포스터를 붙여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경없는의사회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표어를 들고 구호도 외치고,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이처럼 협동하여 국경없는의사회에 도움을 주고, 이 도움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며 "학생회의 수평적 소통과 배명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모여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기업후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경없는의사회에 천만 원 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은 건설, 생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과 신뢰의 대한민국'을 모토로 시험인증산업을 이끌어가는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입니다. KCL은 모로코와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로코 재생에너지연구소 IRESEN의 건물 에너지기술 관련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을 진행해온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KCL의 전 임직원은 지난 9월 대지진을 겪은 모로코와 그 희생자에 깊은 애도를 보내고, 국경을 넘어 안전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던 중,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긴급 구호를 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고액후원

### 상프론티에르 클럽 강정민 후원자 위촉식 진행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한국 사무소에서 고액후원자 모임인 상프론티에르 클럽의 여덟 번째 멤버로 강정민 후원자님을 위촉했습니다. 남양주에서 편한내과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의 강정민 후원자님은,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가 파견을 통한 의료 활동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늘 미안함과 마음의 빚이 있었다. 오지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고동 받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1억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 유산기부

### 국경없는의사회, 신한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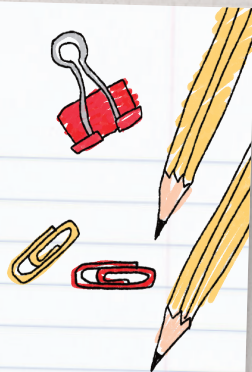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에서 신한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본 협약에 따라 유산기부자를 발굴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본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에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유산기부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활동에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긴급의료구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으로 협력해 주실 신한은행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보고 유산기부를 결정했습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로 접하면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의 참혹함을 겪고, 죽어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와 유튜브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보고, 또 의사 친구들로부터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경없는의사회를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가 주사와 약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봐야 하니깐요. 예전부터 유산기부를 하면 뿌듯하고, 보람 있을 것 같아서 늘 마음속에 유산기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던 유산기부를 바로 실천하고자 보험 사후수익자를 국경없는의사회로 변경했습니다. 추후에는 저의 다른 자산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국경없는의사회에 유산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기부를 통해 유산기부에 참여하신 박주님





## 2024 후원자 행사

# 내가 그린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자님의 언어로 국경없는의사회를 표현해주세요!

**그림, 시, 편지, 사진** 등의 작품을 보내주시면 일부를 선정하여,  
오는 6월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후원자님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4년 4월 8일 ~ 5월 31일

### 참여방법

1. 우편주소로 작품 실물 우편발송 혹은
2. 우측 하단 QR코드 접속 후 온라인 제출



### 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64,  
3층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우편번호: 06649)

온라인  
제출하기



ourmsf2024.msf.or.kr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되어 분쟁·전염병 창궐·자연재해·의료 소외 지역에서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입니다.

후원문의 02-3703-3555 / 문자기부 #1971 (3,000원)

www.msf.or.kr